



제목 다민족을 품고 섬기는 교회

발표자 김 성 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다민족 담당 영어 예배 Peter Kim 목사
 중국어 예배 陳玉捷 목사
 러시아어 예배 Vladimir Song 목사

강의 내용

퀸즈장로교회는 미국 뉴욕의 후러싱 지역에 1973 년에 장영춘 원로목사께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우편번호 11355 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어 예배를 시작으로 영어예배, 중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등이 각각의 국가 출신인 목사님들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의 당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새로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민족이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강의에 담았습니다.

➔ 다음페이지

주제별 강의

1. 길을 잃다	김성국 목사
2. 아버지의 마음	김성국 목사
3. 어떻게 초청할까?	김성국 목사
4. 문화충격	김성국 목사
5. 십자가로 하나 되기	김성국 목사
6. 형제 리더십	송요한 목사
7. 언어를 초월한 예배	첸위지 목사
8. 다음세대를 위하여	홍한나 권사
9. 마음과 공간 넓히기	김성국 목사
10.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김도현 목사
11. 질문과 응답	남형욱 장로

➔ 다음페이지



1. 길을 잃다

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길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인이민 교회로서 건실하게 성장해온 퀸즈장로교회는 여전히 퀸즈 플러싱에 견고히 서 있었지만 많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새로운 가족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2. 아버지의 마음

한인 이민 목회자 관점으로 본 플러싱은 어려운 자리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의 플러싱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선명히 보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10절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다민족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다민족이 사는 플러싱에 있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도 절절해졌습니다.

3. 어떻게 초청할까?

다민족을 어떻게 초청할까? 먼저 다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말씀, 노방 전도, 관계, 특별 집회, 기도, 소문, 비전, 한인교회가 40년 동안 구축한 교육, 양육, 행정 등을 통해 다민족 회중이 매 주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한인이민교회라는 견고한 정체성이 다민족교회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변화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생활방식, 생각들을 품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해를 넘어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5. 십자가로 하나 되기

다민족 교회의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3-16)

십자가를 통해 전혀 관계없던 자들이 한 새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6.형제 리더십

형제적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리더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알며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모든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렀다. 우리는 형제적 리더십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7.언어를 초월한 예배

우리가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며 국적을 뛰어넘는 언어로서 모든 사람이 사랑안에서 교통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8.다음세대를 위하여

역설 같지만, 다민족 사역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양성의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께 집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수용하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때, 결국 민족과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다민족 사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는 은혜와 기쁨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그들 또한 온 민족과 열방을 품고 복음 위해 전진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9.마음과 공간 넓히기

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까지 3 세대가 살기에는 13 평 아파트는 너무 작았습니다. 어려웠지만 25 평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민족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다민족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 이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일들이 기대됩니다

10.주님 다시 오실때까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하는 거대한 다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이 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로 하여금 한 교회가 되게 하였을 까요?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때문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연합함과 믿음이 차이와 갈등을 덮고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